

말씀: 마태복음 1:25

요절: 마태복음 1:23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Merry Christmas! 저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셀린 디온(Celine Dion)의 ‘오 거룩한 밤(O Holy Night)’과 ‘아베 마리아(Ave Maria)’를 자주 듣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거룩한 날이고, 정말 기쁜 날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주고서라도 구원하실 만큼 귀한 존재들이며, 진실한 사랑의 대상임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계보(系譜)와 그의 탄생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에는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 방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은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임마누엘하신 은혜를 충만히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系譜)(1-17)

신약 성경에는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대상이 주로 정통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계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자 마태는 중요한 계보 문제를 꺼내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며 예수님의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야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수면제’라고 합니다. 처음 성경을 읽고자 결단한 사람 중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를 계속 반복하다가 지겨움 가운데 하품을 하고 졸려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의 깊은 뜻을 알면 이는 수면제가 아니라 눈을 번쩍 뜨고 성경을 읽고자 결단하게 하는 엄청난 영적 각성제임을 알게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절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고 단순하게 보이는 말씀이지만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구약을 연결하는 말씀이고 또한 신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대단한 말씀이며, 깊은 진리가 담겨진 말씀으로,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보(系譜)란 족보(族譜, Genealogy)란 뜻입니다. 1:1절은 계보의 대전제로서 예수님의 계보의 성격을 잘 말해 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 역사에 세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인류 구속역사를 시작하시고, 그의 씨에서 메시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22:17,18). 또한 다윗에게는 그의 씨를 통해 영원한 메시야 왕국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삼하7:12,13, 뉘1:32,33).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구속역사의 씨를 뿌리시고, 다윗을 통해 꽃을 피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로서 이 분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인류 구속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계보를 보면 누가 몇 세에 아들을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보에는 '죽고'가 없고 '낳고'란 단어만 39번 나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계보가 생명의 역사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한 생명의 역사가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생명 구원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죄로 인해 파멸해 가는 인간들을 어찌하든지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마침내는 그 약속대로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계보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에서 다윗 왕까지(2-6a) :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은 창세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창12:2)”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창15: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창17:5)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창22:17-18)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초로 인류 구원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삭, 야곱, 유다 등을 통해서 이어져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는 모두 허물과 실수가 많은 자들로서 행위로 하면 도저히 쓰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고 무자하여 소망이 없었고 어떤 상황에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이삭은 연약했고, 분별력이 없었으며, 야곱은 이기적이고 속임수가 강하여 축복을쟁취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동생을 판 인신 매매범이요, 창기를 찾던 육신적인 자였습니다. 이들은 행위로 보면 도저히 쓰임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진

실 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인류 구속 역사의 주인공들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기할만한 일은 예수님의 계보에는 장자 상속이라는 유래나 인간의 전통과 관습보다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통해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은 둘째요, 유다는 넷째며, 다윗은 여덟째로 막내였습니다. 물론 장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역사는 능력과 힘이 있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많은 재물과 정보를 소유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은 전통과 인종과 신분과 사회적인 지위와 타이틀과 경제력과 인간적인 지혜와 도덕성을 중시합니다. 세상은 연약한 자, 허물과 실수가 많은 자, 부도덕한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통과 인종, 신분이나 도덕성 등 모든 것을 초월하여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의 계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라나, 리브가 같은 여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하고 천대하는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인들은 억압과 학대와 무시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약자 중의 약자였습니다.

3-6a절을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 계보에 나오는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을 보십시오. 이들은 여인 중에서도 더 비참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모든 인간 조건을 초월하여 믿음을 보시고 구원역사에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말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맘며느리였습니다. 창세기 38장은 다말이 어떻게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었는가를 말해 줍니다. 그녀는 야곱의 가문에 들어와 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듣고 배워 이들을 통해 홀려가는 축복의 물줄기를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후사(後嗣-대를 잇는 자식)를 두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 시아버지인 유다가 둘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었으나 그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다말은 남편을 둘이나 잃은 박복(薄福-복이 없음/ 팔자가 사나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또 자식을 낳을 소망조차 없었으므로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구한 운명에서 다말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신세타령이나 하고 슬퍼 울며 우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이 가정에 축복의 물줄기를 이어갈 후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죽음을 각오하고 창녀로 위장해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이고 동침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이는 인간적으로 볼 때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공자가 이 족보를 보

았다면 “우째 이런 일이...” 하면서 기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축복의 물줄기를 잊고자 생명을 건 다말의 믿음을 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하며 다말의 믿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말은 믿음으로 슬픈 운명에 도전하여 이를 극복함으로 예수님의 죽보에 오른 첫 번째 여인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웃음을 팔며 돈과 쾌락에 몸을 맡기고 찰나적 인생, 밑바닥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홍해를 건넌 사건, 요단 저편에서 아모리 두 왕을 전멸시킨 사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야기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에 숨으려온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고 정탐꾼을 잡으려는 병사들을 지혜롭게 따돌렸습니다. 라합의 행위는 자기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자기 민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임을 알고 담대하게 운명을 극복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정탐꾼 중의 하나인 살몬의 아내가 되어 황태자의 마음을 소유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룻은 누구입니까? 성실하고 광야에 피어난 한 송이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룸은 모압 여인으로 젊은 나이에 홀로 되었습니다. 모압은 저주받은 민족이었습니다(신23:3).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던 나오미는 흉년이 들자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은 모압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후사도 없이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룸은 모두 남편을 잃고 슬픈 과부들이 되었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재가(再嫁)하여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더구나 시어머니 나오미는 장래 아무런 희망이 없었기에 더 이상 함께 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국 모압을 떠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낯선 땅에 온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시어머니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룸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룸의 결단은 단순한 동정심에서 나온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룻1:16,17) 룸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깊은 신앙을 배웠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전 인생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룸의 믿음을 받으시고 보아스의 속량함을 덧입고 다윗의 증조(曾祖)할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다말과 라합과 룸은 모두 믿음으로 슬픈 운명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히 쓰임 받은 여인들입니다. 믿음이란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운명에 도전하여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슬픈 운명이나 절망이나 패배란 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혈통과 신분과 도덕성과 국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신성(神聖-매우 거룩하고 성스러움)해야 할 예수님의 계보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여인들은 있어도 삭제해야 하는데 마태는 왜 일부러 집어넣었을까요? 이왕에 넣으려면 사라나 리브가 같은 믿음의 여인들을 넣을 것이지 왜 하필 이방 여인들입니까? 만약 사라와 리브가가 이를 알았다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이봐요, 마태 선생, 왜 우리는 빼고 저런 이방여인들을 넣었나요? 당장

고치세요.”라고 항의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일부러 심술을 좀 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마태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며,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십’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모든 의를 깨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인류 구원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 방법을 잘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둘째, 다윗 왕부터 바벨론 이거 전까지(6b-11) :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웃시야를 낳고 웃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녀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6b-11절까지는 다윗 왕국이 계속됩니다. 다윗은 이새의 여덟 째 아들 막동이로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대개 막동이는 의존심이 많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쓸모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막동이였지만 달랐습니다. 그는 책임감이 강했고 목자의 심정이 충만했습니다. 그가 아비의 양을 돌볼 때 사자나 곰이 어린양을 물어 가면 어린양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곰과 사자와 싸우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믿음으로 거대한 골리앗에 도전하여 무너뜨린 믿음의 용장(勇壯)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만나 심히 기뻐하시고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람이 축복을 받기 전에는 겸손하다가도 축복을 받은 후에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조금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공과 의를 행하며 사랑과 평화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메시야 왕국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씨를 통해 영원한 메시야 왕국을 건설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삼하 7:12,13, 뉘1:32,33). 이렇게 다윗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치명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말씀은 다윗의 죄를 여지없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통일이스라엘 왕국을 이룬 후, 어느 날 모든 신하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안일하게 늦잠을 자고 일어나 성을 거닐다가 결국 정육의 유혹을 받아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충신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전사(戰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간음 죄, 살인교사 죄, 탐심 죄, 가정파괴 죄, 권력남용 죄 등 중대한 죄를 범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죄를 범하면 가차 없이 잘라버립니다. 다윗도 그처럼 치명적인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구속역사에서 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시켜서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했을 때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상한 심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귀히 쓰셨습니다.(시편51) 또한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을 사랑하사 그를 통해 다윗 왕국이 계승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왕일지라도 죄를 철저히 다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왕국은 솔로몬 왕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이방여인을 취해서 말년에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음모와 배반, 암살과 쿠데타와 같은 정변(政變)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아사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통해 다윗의 등불을 지키셨습니다.(왕상11:36)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숭배의 죄와 도덕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무섭게 심판하시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관영(貫盈-가득 참)하였을 때는 반드시 이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셋째, 바벨론 이거 후부터 그리스도 탄생까지(12-16) :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 나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 라”(12-16)

이 시기는 신구약 중간시대로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자 유다는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갔다가 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헬라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전쟁의 연속으로 이스라엘에는 잠시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권 앓은 백성으로 이민족의 통치를 받으며 착취당하고 짓밟히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단9:16, 시 137:1-3). 젊은 청년들은 노예가 되고 젊은 처녀들은 창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은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피폐(疲弊-지치고 쇠약해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밀미암아 인류 구속역사는 중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기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16절은 예수님의 오시기 전의 상태를 “흑암에 앓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앓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때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메시야에 대한 희망은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시기에도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구속역사를 줄기차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God never fails! 인간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상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용서의 하나님이시요,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또한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놓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야가 탄생하심으로 어둡고 긴 밤이 지나가고 희망찬 새아침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II. 임마누엘 예수님(18-25)

18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임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유대 결혼은 정혼(定婚)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지만 1년 동안은 순결을 지킨 후에 혼례식을 거행했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입을 다물 줄 몰랐습니다. 그에게는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마리아로 시작해서 마리아로 끝났습니다. 그가 목수일로 인해 피곤할 때도 아름답고 순결한 마리아만 생각하면 피곤이 일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리아와 하루 속히 소박한 신혼살림을 꾸릴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어느 날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절망감과 배신감으로 인해 자신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감정적인 사람이었다면 장인 집에 불을 지른다거나, 고소해서 매장을 시킨다거나, 인생의 소망을 잃고 갈릴리 바다에 투신자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는 절망적인 인생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조금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하다가 지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20,21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임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이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탄생하실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세 가지로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태된 분이십니다(20). 이는 예수님의 그 본체가 하나님이심을 말해 줍니다(빌2:6). 또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지닌 인간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아담의 죄의 피를 이어받지 않아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히4:15b).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께서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에 합당하십니다.(딤전2:5)

둘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21). 이는 예수라는 이름에 잘 나타납니다. 예수란 '구원자'란 뜻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경제적인 구주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피상적(皮相的)으로 볼 때 경제문제(돈, 물질)가 인간사의 근본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경제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인생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행복이 굴러들어 올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큰 착각입니다. 경제문제가 해결된 나라일수록 죄

를 더 많이 짓고 죄로 인해 더 고통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내면의 세계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정말 고통하는 것은 경제 문제보다도 죄 문제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는 문동병과 같아서 인간을 추하고 더럽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쓸모없게 만듭니다. 죄는 피흘림을 요구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피를 흘리며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과멸로 이끄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벧전2:24). 그리고 누구든지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기쁨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법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교육으로 인간을 변화시켜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코 죄 문제는 해결 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식인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인종의 추장이 아들에게 선진교육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영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이 마침내 영국에서 유학생 활을 잘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에서 그와 함께 공부를 했던 영국인 친구가 그 아프리카 친구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글쎄 그 아프리카 친구가 사람고기를 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인 친구는 기겁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여보게 자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아니 문명국가 영국에까지 와서 교육을 받은 자네가 어떻게 이처럼 사람고기를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자네와 저 못 배운 식인종들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그러자 그 아프리카 친구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다른 게 있지 저 사람들은 손으로 사람고기를 먹지만, 나는 포오크와 나이프로 사람고기를 먹고 있지 않는가.”

죄인은 같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수갑을 차고 같이 감옥(獄-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어떻게 다른 죄수를 구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수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수 아닌 자가, 외부로부터 와서, 감옥의 문을 열어 주워야만 합니다. 그것도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와서 자물쇠를 열어 주워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의 감옥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죄인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이름입니다. 세상에 이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행4:12)

셋째,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23). 저자 마태는 이 사건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일찍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이라”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사건임을 증언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권세와 특권을 포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비우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공생애 기간 동안 문제 많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로 섭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욕으로 병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고, 고독한 닉고데모와 대화하시고, 세리 마

태와 대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낫아지셔서 어떤 종류의 사람도 품고 대화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들의 모든 연약함과 고질병을 다 담당해 주심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17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칊어지셨도다.” 또한 마태복음 12:20절은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꺼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운명과 죄 짐과 마음의 상처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나음을 얻고 밝고 힘찬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출판사에서 한번은 이런 예문을 제시하면서 공모를 하였습니다. “당신은 과연 어떤 사람을 당신의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읽서들이 날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등으로 뽑힌 읽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에도 나와 함께 있어 주는 사람”이라고 쓴 읽서였다고 합니다. 정말 진정한 친구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떠날지라도 내 곁에 함께 있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친한 친구도 군대 갈 때 같이 열차 타고 부대까지 가서 입소식 할 때까지는 같이 있어 줄 수 있지만 막상 훈련소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혼자입니다. 내가 잘되고 뭔가 잘 나가는 듯 싶으면 너도나도 사람들이 나를 아는 체 하고 나의 친구가 되어 주는 것 같지만, 막상 내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내가 아무 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을 때에, 내가 병들어 죽어갈 때에 그때도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근본적으로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어라고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그 이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은 우리 죄인들을 향한 은혜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은 우리를 향한 위로의 이름이요, 소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은 <그 이름>이라는 복음성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겨진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이요, 귀한 비밀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낫아져 오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며,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함께 하는 사랑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함께 하는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장막 생활을 하시며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열 두 제자 중의 하나였던 마태입니다. 그는 알페오의 아들로서 별명이 레위였습니다. 그는 원래 악명 높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창기와 동일시 될 만큼 공인된 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부자였지만 내면은 이기심으로 병들어 고통했습니다. 죄의식과 고독으로 절망의 심연에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가 가버나움

세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큰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마태는 레위의 삶을 청산하고 일생 자신을 드려 주와 복음역사를 섬겼습니다. 마태란 "여호와의 은사"란 뜻입니다. 남에게 해만 끼치던 그가 변화되어 성 마태가 되고, 주옥같은 산상 수훈이 담긴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몇 년 동안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페르시아, 에디오피아, 시리아, 그리스까지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왕의 왕, 주의 주되신 예수님께서 쓸모없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제자로 키우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일생 간직하고 전파했습니다. 마태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마누엘 은혜는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슬픔을 이길 수 있고, 고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운명을 이길 수 있고,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판치는 혐한 세상에서도 사명인의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캠퍼스 개척과 세계선교의 위대한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1:1역사를 통해 12제자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이 학생 중심의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2015년 7부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사 극복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초대교회 역사, UBF 초창기 역사, 오히려 배가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나와 가정과 우리와 함께 하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은 잠이 깨자 곧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습니다(24,25).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자기의 꿈이 깨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역사에 귀히 쓰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성탄절은 인간을 위하여 여자의 후손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대한 역사의 파노라마입니다. 2015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아기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은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이 인간적 조건은 부족할지라도 믿음으로 남는 자가 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생명 구원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2015년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 임마누엘의 사랑과 은혜가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